

삼성항공 4인승 수직이착륙기 개발 추진

— 차세대 대도시 교통수단으로 주목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4인승 수직이착륙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 개발된다. 삼성항공(대표:이대원)은 8일 미국 MI사와 4인승 수직 이착륙기 개발 사업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삼성항공과 협력할 美 MI社は 지난 88년에 비행접시형 2인승 수직이착륙기를 개발,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으며 무인 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Aircraft), 로타리엔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특허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이다.

항공기와 자동차의 기능을 결합시킨 유인 수직이착륙기는 54년 미국 컨베어社에서 수직 이륙 및 수평비행에 성공한 이래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의 한계를 겪고 있는 21세기 대도시의 주요 인력수송수단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연간 10만대, 2백억불 규모의 잠재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소재 복합재 항공기인 이 스카이카는 반경 10m의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9인승 미니버스크기에 연료소모도 헬기의 4분의 1, 경항공기의 반밖에 들지 않는데 비해 속도는 헬기의 2배 이상인 시속 5백 7십킬로이고 대당 가격이 90만원(판매초기 예상가격임)로, 헬기나 경비행

기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카에 장착되는 엔진은 기존의 직선운동을 하는 피스톤엔진과 달리 직접 회전력을 얻는 방식인 로타리엔진을 사용해 항공기 터빈엔진과 같은 원활한 운전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산비는 피스톤 엔진의 85% 수준으로 상업성이 매우 높다.

이 로타리엔진은 60년 발명자 독일의 반겔(Wankel)과 자동차회사 NSU社에서 최초로 자동차용으로 적용시킨 3사이클 내연기관으로 일본 마쯔다 자동차社 스포츠카 RX-7에 사용되고 있는, 상업화가 진행중인 미래형 엔진이며, 다양한 장점에 의해 기존 피스톤엔진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항공도 이러한 잠재성을 보고 그동안 항공기 엔진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MI社와 협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항공과 미국 MI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인승 수직이착륙기 및 로타리엔진의 공동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美 MI社は 자체 기술력으로 스카이카의 시제개발을 완료하고, 로타리 엔진의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천 5백만불을 투자, 재정난을 겪으면서 이번에 삼성항공과 손을 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과 MI社가 공동 개발기로 합의한 4인승 수직이착륙기인 스카이카(모델명 : M400)

